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흔들리는 마음의 밤
말씀은 빛처럼 스며든다.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길이 끊어진 듯한 자리에서
당신은 길을 가리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신 분’으로 우리를 품으신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신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르며
살아 있음이 은총임을 배운다.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당신과의 일치 안에 흐르는 사랑임을.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5/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6,105
현재 참가 인원 - 109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샤를르 드 푸코(2)

‘사막의 성자’로 알려진 샤를르 드 푸코(1858~1916)
20세기 초반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피살



네제의 노틀담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입회한 후 마리 알베릭(Marie-Alberic) 형제로 불리게 된 푸코는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가난한 삶을 찾아 시리아의 아크베(Akbes) 수도원으로 떠났다. 그러나 나자렛에서 가난하게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경했던 푸코는 이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가난한 삶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작은 공동체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도회 창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엄격하고 극단적인 삶으로 구상된 수도 회칙 초안을 두고 위벨렝 아빠스는 이의를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푸코는 나자렛 예수의 삶을 구현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했지만, 기본적인 영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1897년 트라피스트회 총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자렛에서의 삶」을 위해 수도회를 떠난 그는, 그렇게 열망하던 나자렛으로 가서 현지 글라라 수녀회의 사환으로 일하며 허름한 옷을 입고 넓은 판잣집에서 기거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수녀회의 허드렛일을 하며 남은 시간은 관상 기도에도 바쳤고, 그 안에서 나자렛 예수가 보여 주었던 삶을 따르려 노력했다.

수도회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1900년 프랑스로 건너간 푸코는 서품을 준비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떠돌았다. 아직 예수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자렛에서의 삶」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01년 사제로 서품된 후, 사하라 사막 변경의 베니 아베스(Beni-Abbes) 지역에서 형제회 설립을 준비한 그는 그곳에서 원래 계획했던 나자렛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성체 앞에 앉아 기도했으며,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작은 오아시스이자 국경 수비

대가 주둔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곳에는 오아시스에 사는 은수자들, 카라반 상인들, 수비대 사병들과 장교들로 늘 북적였다. 그리고 그들은 푸코를 자주 찾는 단골이 되었다. “저는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게 되어 글을 읽을 시간은 물론 묵상할 시간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군인들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노예들도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지어 놓은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행자들도 찾아와 형제애를 호소하고, 가난한 이들은 늘 넘쳐 납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자주 여행하던 푸코는 1905년 8월, 투아레그 지역 사하라 한복판의 작은 오아시스인 타망라세트(Tamanrasset)에 은수 생활을 위한 지부를 세웠고, 1910년에는 이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아세크림 고원 지역에 또 하나의 작은 지부를 세웠다. 그는 기본적으로 관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몇 시간이고 성체 앞에 머물며 예수의 삶의 자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싸웠고, 여러 사람의 목인 속에 지속되던 노예 제도의 철폐를 위해 파리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사하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철도, 전보, 천문대 등 새로운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던 그는 지역 여성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투아레그어와 그들의 문학적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프랑스어-투아레그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 헌신했다.

열정적이고 복음적이었던 그의 생애와는 달리,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1916년 12월 1일,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리비아의 한 도적 집단이 프랑스 식민지 사하라 지역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채를 짓던 푸코는 그들에게 붙잡혀 우발적인 총격으로 희생

되었다. 프랑스 군인들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푸코 곁에 있던 한 젊은이가 총을 쏜 것이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순응적 선교 방식을 제시한 인물로도 주목받는 그의 생애는, 삶으로 실천된 복음이었다고 실천적 가난이었으며 버려진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사랑으로 설명된다. 나자렛 예수를 닮고자 했던 그의 삶은 사후에도 그를 따르는 공동체들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예수의 마들렌 작은 자매(1898~1989)는 그의 영성에 따라 1939년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를 설립했고, 러네 부아욘(R. Voillaume, 1905~) 신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사제들은 그의 삶에 감화를 받아 1933년 파리 몽마르트르의 예수성심 대성당에서 「예수의 작은 형제회」를 창립했다. 이는 1901년 푸코가 베니 아베스에서 시작한 공동체 이후 공식적인 형제회의 탄생이었다.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는 현재 약 70여 개국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세상 속 관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예수의 작은 형제회」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새로운 형태의 관상 수도회로 인정받아 중동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약 4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지 사항

1 성모의 밤 행사 안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아래와 같이 **미사와 함께 하는 성모의 밤**을 봉헌합니다.

- 일 시 : 5/15(금) 오후 7시
- 장 소 : 성전
- 대 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

***이 날 5/15(금)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새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6월에 시작하여 7개월의 준비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가까운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 교리반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리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 일시 : 5/17(주일) 오전 10:00 교중 미사 후
- 장소 : 101호실

3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7/1/2025 - 8/31/2026

대상 : 전신자

5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6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6,1-7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1 베드 2,4-9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4,1-12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32	예물 준비 성가 : 34, 220	성체 성가 : 181, 176	파견 성가 : 244
-------	-------------	--------------------	------------------	-------------

부활 제4주일 (4/26)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60명	55명	208명	151명	43명	517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5/28/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제16회 생명 주일 담화 한국 사회의 입법 동향과 인간 생명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모든 이의 책임을 돌아보는 생명 주일이 제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생명 주일에는 특별히 생명에 관한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법률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법률은 특정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고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국가의 법률이 모든 국민의 생명, 특히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약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촉구해 왔습니다. 무고한 인간의 불가침적 생명권은 “인간의 본성적 조건”이자 “시민 사회와 사회 질서의 본질적 요소” 『생명의 선물』 [Donum Vitae], 제3부)로서 정부와 입법자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평화와 공동도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공동선을 보장”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 71항)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불가침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나 도덕적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행위는 정의와 애덕이라는 근본적인 덕에 위배됩니다.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태아든 배아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 환자이든 임종하는 환자이든, 무고한 인간의 살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든 …… 타인을 위해서든, 이러한 살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고]”, “어떤 공권력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와 권리』 [Iura et Bona], II).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우려

를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형법상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채 관련 법률 제정이 미비하여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헌법 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결정 요지)이 6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결코 부정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상황도 목적도 법률도 내재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62항). 그런데도 이 법률안은 태아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려 합니다.

둘째,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말기 환자의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자살은 심하게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거부하는 것”(『생명의 복음』, 66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은 이런 자살 행위를 미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 돕게 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와 조력 자살과 같이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고한 인간 생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선물』, 서론, 5항). 태아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의료인도 존재하지 않는 권리의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의료인 헌장』 [Nuova Carta

degli Operatori Sanitari], 169항). 오히려 임신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와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권리,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의한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은 “개인의 선택만 아니라 공동선에도 근본적으로 위배”(『생명의 복음』, 72항)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며(성 아우구스티노, 『자유 의지론』 [De libero arbitrio]), 바른 이성을 따르지 않는 법은 법의 타락이며 폭력입니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Summa Theologiae], I-II). 따라서 이런 법은 “양심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양심적 거부를 통하여 이 법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의무”(『생명의 복음』, 73항)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위정자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

우리나라의 법률이 참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아와 말기 환자 등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하며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님의 달 5월에 모든 어머니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6년 5월 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권 직 상 주교